

존 오스왈트 박사, 킹스, 세션 30, 3부

열왕기하 24-25장 3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그 성이 멸망함과 절망과 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 19년 오월 칠일 8절부터 바벨론 왕의 신하 느부갓네살 아돈과 친위대장 느부갓네살 아돈이니라,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시가 함락된 지 약 한 달쯤 됐네요.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모든 중요한 건물을 불태웠습니다. 친위대장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 전체가 예루살렘 사방의 성벽을 헐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나는 싸우기 위해 서명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는 벽을 허무려고 서명한 것이 아니다. 글썄, 당신은 서명했으므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앗시리아인들이 따랐고 바빌로니아인들이 채택한 3단계 계획에 대해 이전에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이웃에 나타나서 당신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똑똑하다면 동맹을 받아들이고 거기에는 큰 공물이 따르게 됩니다. 글썄요, 필연적으로 당신과 당신의 백성은 그 조공을 바치는 데 지쳐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당신의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당신이 똑똑하다면 항복하면 아마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물이 제기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원주민 왕을 왕좌에 앉혔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는 반란을 일으키고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항복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 도시가 불탔고, 성벽도 파괴되었습니다. 이곳은 다시는 반란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번이 세 번째 파업입니다.

12절에서 천부장은 그 땅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 일부를 남겨두고 포도원과 밭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다음 구절들, 즉 25, 13절과 그 다음 구절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간단한 요약을 가졌습니다.

그는 성전을 불태우고 궁궐을 불태우고 집들을 모두 불태우고 성벽을 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6개의 구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놋기둥과 이동식 받침대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고 그 놋쇠를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솔과 부삽과 심지 자르는 도구와 접시와 성전 봉사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가져갔습니다. 호위대장은 향로와 대접 등 순금이나 은으로 만든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바다와 받침의 놋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무거웠더라

각 기둥의 높이는 18규빗이었습니다. 한 기둥 꼭대기의 놋 머리는 높이가 삼 규빗이요 그 둘레에는 놋으로 만든 그물과 석류가 있더라 네트워크를 갖춘 다른 기둥도 비슷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8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니요, 죄송합니다. 7장 15절에서 그는 높이가 18규빗이고 둘레가 12규빗인 두 개의 놋기둥을 주조했습니다. 그는 또 청동으로 머리 두 개를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각 머리의 높이는 5규빗이었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는 사슬을 엮어 그물처럼 장식했는데, 각 머리에 일곱 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석류를 두 줄로 만들어 각 그물에 돌아가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23절에서 그가 부어 바다를 원형으로 만들었으니 크기가 10규빗이요, 한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까지의 길이가 15척이요, 높이가 5규빗이더라.

나는 열왕기상 7장에 있습니다. 25절에 그가 12개를 만들었고, 바다는 12개의 황소 위에 섰는데, 셋은 북쪽을 향했고, 셋은 서쪽을 향했고, 셋은 남쪽을 향했고, 셋은 동쪽을 향했습니다. 27절에서는 놋으로 이동식 받침대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각각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는 놋으로 대야 10개를 만들었는데, 각 대야는 40바트를 담을 수 있고 너비가 4큐빗입니다. 10개의 스탠드 각각에 세면대 하나씩. 언어의 유사성이 보이시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는 성전을 헐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걸까요? 녹음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의 비극은 주님께 바쳐진 이 물건이 그분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내 앞에서 한 기도와 간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었나이다. 내 눈과 마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과 정직함으로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준행하고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이스라엘 왕위를 계승할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가 네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나 너나 네 자손이 나를 떠나서 내가 네게 명령한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성별한 이 성전을 멸시하라. 그 때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말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은 잔해더미가 될 것이다.

지나가는 자들이 다 놀라 비웃으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자기 땅과 이 성전에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하리로다 사람들이 대답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여 그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느니라.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북엔드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성전의 영광이 있고, 여기에 성전의 비극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거기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성전 신학을 구성할 수 있습니까? 물론 9장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사원에 대해 왜 그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나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 반영됩니다. 왜 그렇게 자세하게요?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나요? 그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집, 그의 이름이 있을 집이었다. 그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것을 떠났다.

왜 그 사람이 그것을 떠났나요? 9장에서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요, 당신이 나에게서 돌아서면 나는 건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내 마음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모두 상징주의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닐 때.

그들은 공포입니다. 그들은 못 생겼다. 그들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면에서 열왕기서는 성전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상징적이며, 하나님이 어디로 향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고안된 상징적 상징 이라고 믿습니다 .

제가 가을에 여러분에게 에베소서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 의미에서 이것이 모든 것이 향하는 곳입니다. 나는 최근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의 성행에 관심을 갖고 매료되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성서의 마지막 책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천하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것이 히브리어 순서로 된 구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서는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성전을 자신들을 위해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의해 성전이 부패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적 구원신학인 출애굽기의 마지막 16장이 하나님의 집으로 오시는 이야기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단어들의 메아리입니다. 괜찮은. 이제 킹스로 돌아갑니다.

책은 어떻게 끝나나요? 솔직히 조금 신비롭습니다. 30년대에는 25장 27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간지 3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김이 감옥에 갇힌 지 37년이 됩니다.

아벨 마르둑 느부갓네살이 56년 만에 마침내 죽던 해, 아벨 마르둑이 바벨론의 왕이 된 해, 즉 그의 원년에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여호야김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엔 Awel Marduk이 그의 아들인 것 같아요. 나는 그것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는 통치 첫 해에 유다 왕 여호야김을 감옥에서 풀어 주었습니다. 그는 12월 27일에 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에게 바빌론에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뭐? 유다는 아무것도 아니다. 유다는 Jessamine 카운티만큼 크지 않습니다. 바빌론에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죄수의 옷을 벗고 평생 동안 왕의 상에서 늘 먹으며 살았습니다. 왕은 여호야김에게 평생 동안 일정한 양의 식량을 날마다 주었어요. 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글썄, 학자들은 이것에 관해 서로 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 아마도 유다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라인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는 독립된 국가로서 인간 왕이 있으니,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다.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났나요? 아니 아니.

뭐라고요? 응. 나는 여기서 잔인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전적으로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우울함, 파멸, 비극, 재난.

인간 왕이 왕좌에 앉고 군대가 독립을 보장하는 독립 민족 국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났어.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일종의 후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단지 포스트스크립트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 정말 이야기가 계속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일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다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은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책은 어둡게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우리 주변을 닫고 갑자기 촛불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으며 그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는 불이 켜진 성냥을 50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 하나의 작은 빛의 반짝임, 아, 그게 바로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둠이다. 요아킴? 누가 알아? 누가 알아?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 3장 반대편에는 “하나님은 나의 머리시라”고 했습니다. 내 머리. 응.

응. 응. 다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가 머리를 드니 이는 시편 3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예. 예. 자,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몇 달 전 처음에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모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모두 신명기에 비추어 기록되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신명기가 성전에서 발견된 621년까지는 기록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잠시 동안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 책이 1400년에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신명기에 비추어 기록되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들은 그런 배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의 역사철학은 무엇인가? 꽤 간단합니다. 언약을 지키며 축복을 경험하세요. 언약을 어기고 저주를 경험하라.

그렇다면 좋은 왕은 누구일까요? 언약을 지킵니다. 누가 나쁜 왕인가?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는 오랫동안 통치했습니까? 그 사람은 물질적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 사람이 권력이 많았나요? 그러나 그는 언약을 어겼습니다.

잊어 버려. 그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단히 말해서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야훼에 대한 절대적인 전적인 헌신입니다. 야훼에 대한 절대적이고 전적인 헌신. 출애굽기 20장 2절로 바로 돌아갑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 둘째 계명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된 어떤 것의 형태로는 신을 포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세계관은 성경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 두 가지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이 무엇이든 우주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신은 우주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신성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나는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신은 금송아지 모양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당신은 당신이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그분을 이 세상의 일부로 만드셨습니다. 야훼 외에는 특히 앓시리아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는 전에 이것을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9월까지 내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신뢰하든지 어느 날 당신을 공격하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직업, 집, 연인, 하나님 대신에 당신이 신뢰하는 모든 것이 언젠가는 당신을 공격하고 파괴할 것입니다. 처음 세 계명이 처음 네 계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것은 마지막 6개를 합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당신에게 친절하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바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ahav 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hesed)와 아하브(ahav) 라는 단어는 모두 사랑으로 번역됩니다. Ahav는 더 많은 애정입니다.

헤세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존경심(mishpat)은 종종 정의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것은 단순한 법적 형평성보다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에서는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Kings가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효과가 없었는지 말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한 그리드입니다. 좋아, 내가 널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니? 아멘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책은 언제 나오나요? 글쎄요, 누군가 이 테이프를 복사해 달라고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킹스에 대한 논평을 한 적이 있어요. 내 책상 위에는 타자기로 작성한 1,100페이지가 편집자에게 논평을 위해 전달되었습니다. 내 여동생이 My Exodus, The Way Out 등과 같은 더 인기 있는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력에 감사드립니다. 그 힘에 감사드립니다. 그 아름다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방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책이지만 우리는 당신을 숭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책에서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영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매일 당신을 반영하고,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아멘.